

초기 불상은 왜 파마머리를 하고 있을까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목경찬 지음



경주 남산 보리사에는 일명 '장동건 부처님'이 있다. 그만큼 잘생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상호가 원만하시다'고 표현한다.

부처님 상은 돌로 새기거나 나무로 새기거나 철로 새기거나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32상(相) 80종호(種好)다. 부처님을 일반 사람의 신체와 결부하는 것은 무리다. 부처님은 모두 32가지 특징이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면 80가지 특징이 첨가된다.



경주 남산 보리사에는 '장동건 부처님'이라 불리는 돌부처가 있다. <담앤북스 제공>

어 있는 십이지신 동물에 얽힌 이야기도 나온다.

소는 부처의 가르침과 수행을 상징한다. '법화경'에는 '불타는 집의 비유'에서 소의 설화를 만날 수 있다.

옛날 어느 부자의 집에 불이 났다. 귀갓길에 그것을 본 부자는 아이들에게 어서 뛰어나오라고 소리치지만 아이들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부자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어서 나오라고 한다. 장난감 소리에 아이들은 밖으로 나온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달라고 하지만 그는 장난감 대신에 흰 소가 끄는 수레를 건넨다.

보이지 않았다. 도난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108배로 참회를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불상을 숨기고 나오는 모습을 본다. 아이를 붙잡아 물어보자, '부모님이 아파 매일 집에서 울 수 없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 갔다'는 답이 돌아왔다. 스님은 부처님은 중생과 함께 하신다 깨닫고는 아이를 용서했다.

그날 이후 스님은 사라진 빈자리는 도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암주 스님이 바뀐 이후로 이야기는 전해졌다. 그렇게 불상은 없어졌다 잠잠하기를 반복했다.

책에는 열두 동물과 나누는 법당이라는 주제 아래 숨

이들은 장난감을 달라고 하지만 그는 장난감 대신에 흰 소가 끄는 수레를 건넨다.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일불승을 의미한다. 불타는 집은 미혹에 빠진 세상이며 아이들은 쾌락에 탐닉하는 범부들이다. 양의 수레는 성문승, 사슴의 수레는 연각승을 뜻한다.

이처럼 책에는 불교 교리를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이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사찰 속 숫자가 상징하는 일화를 비롯해 초기 불상은 왜 파마머리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담앤북스·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완전판 켈빈과 홀스=지난 1985년 11월 18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재 당시 '최후의 위대한 신문 연재 만화'로 인기를 얻었다. 전 세계 2400개 신문에 실렸고 단행본은 4500만 부가 팔리며 성공을 거뒀다. 상상력이 풍부한 여섯 살 소년 켈빈과 켈빈에게만 보이는 호랑이 친구 홀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유머가 넘치는 필치로 그렸으며 그 안에는 철학과 예술에 대한 고찰을 녹여냈다. <북스토리·12만원>



▲부모의 말공부=학생들의 치유와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10년 차 초등 교사가 쓴 엄마 아빠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교과서. 저자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수많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정리한 아이가 바뀌는 대화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부모의 말투나 언어습관에 숨어 있는 경향성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면 아이가 들은 말이 아이의 생각을 좌우한다고 본다. 부모의 말이 바뀌면 아이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월요일의꿈·1만8800원>

▲스마트 브레비티=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바이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디지털 혁명, 종이책이나 보고서는 물론 SNS나 유튜브 영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챗 GPT 등장으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커뮤니케이션 인식이 달라졌다. 책은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갖고

두는 저자들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생각의 힘 1만8000원>

▲홈 스위트 홈=제37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소호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홈 스위트 홈'. 지난 2014년 '현대시'로 등단한 시인이 직전의 시집 '불온작'과 불완전한 편지 이후 2년 만에 펴낸 작품집은 사랑으로 설계된 공간을 둘러싼 폭력의 역사를 주목한다. 특히 여성 주체의 역사적 고통을 모티브로 현실의 탈출구를 주시해온 시인은 성차별 약자 혐오 등 가부장제 사회의 어두운 잔재도 노출한다. <문학과지성·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빵도둑과 수상한 프랑스빵=일본 최고의 인기 그림책 가운데 하나인 사바타 케이코의 '빵도둑'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빵도둑은 고소한 빵 냄새가 풀풀 나는 숲속빵집에서 열심히 빵을 만든다.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로 거듭난 빵도둑은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빵축제'에서 선보일 특별한 빵을 만들 생각을 한다. 그런데 빵을 만들다 집으로 돌아간 사이 숲속 빵집이 엉망으로 변해버리는데... <길벗어린이·1만4000원>

▲아파트 서당에 나타난 맹자 선생님=맹자는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살았던 추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그는 사람이 가진 네 가지 본성을 이야기했는데 어진 마음,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 겸손하여 양보

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책은 인의예지 상황에 따른 네 이야기를 아파트 마을문고, 극기훈련 캠프장, 어린이 축구대회, 학교 교실을 무대로 풀어낸다. <북네스트·1만3800원>

▲진짜 마음 수첩="왜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는 걸까?" 작가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추적하는 탐정 진아의 비밀 수첩을 풀어낸다. 사람들은 속스러워서, 상대방이 맘 상황까 봐 여러 이유로 속마음을 숨긴 채 반대의 말을 하곤 한다. 많은 오해와 갈등, 싸움은 이런 것에서 시작될 만큼 이런 일이 비밀 비재하는데, 작가는 비밀수첩을 매개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꿈터·1만2000원>

30여년간 둘러본 9개 나라 책의 공간과 사람들 이야기

지혜의 숲으로

김연호 지음

지혜의 숲으로



책의 첫장을 열면 히말라야의 길가에 앉아 있는 3명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희뿌연 먼지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당시 여행중이던 김연호 대표(한길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너털너털해진 책이지만 두 손으로 감싸안은 채 독서에 열중한 광경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마자 인화한 사진은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책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출판인으로서 괜찮다고 판단한 그는

지금껏 30년 넘게 책을 주제로 사진을 찍고 있다.

최근 김대표가 출간한 '지혜의 숲으로'에는 1987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중국 등 9개 국가를 돌아보며 기록한 160여 점의 사진과 글이 수록됐다. 짧지 않은 세월이 말해주듯 그동안 축적한 3만 여 장 가운데 엄선한 사진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평소 책과 출판문화에 대한 자신의 단상들을 40여쪽의 글로 담아 사진들 사이에 넣어 마치 '책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A4용지 크기의 시원한 판형(가로·세로 20×28cm), 절제된 문장과 348쪽에 달하는 서가 사진, 고품질 확대사진, 책을 보는 사람들 사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책에는 30여년 전 네팔 여행에서 '책의 미학'에 눈을 뜬 이후 부산 보수동의 책방 골목부터 과거시절을 보자 사람이 머물렀던 남경의 도서관, 500년 된 파리의 서점, 세자매가 운영하는 뉴욕의 서점과 1930년대의 영화관을 개조한 책방 등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책의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특히 올 설 연휴에 둘러본 일본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의 스토리는 흥미롭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불리는 이 곳은 전 세계 건축가들이 6년에 걸쳐 로마의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모티브를 얻어 완성했다.

하지만 '지혜의 숲으로'의 진짜 주인은 '책'이다. 47년 동안 출판인의 삶을 걸어온, 말 그대로 책을 만든 사람의 눈으로 '발견한' 3만개의 책은 종이책에 대한 저자의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일상에 책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준다.

"책은 콘텐츠이지만 미학입니다. 한 권의 책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수많은 책들이 임립(林立)해서 더 아름답습니다. 책들의 숲입니다. 나는 소나무 숲이 분출해내는 음향을 좋아합니다. 우렁찬 합창입니다." <한길사·5만원>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